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독일 뒤셀도르프 벤라트 도시숲

글 사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독일 서부 라인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주도로 라인-루르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독일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의 도시로 인구는 약 63만 명, 면적 21,700ha로 우리나라 전주시와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도시이다.

도심에는 상가와 금융가 밀집되어 있고, 녹지와 공원이 비교적 넓게 자리를 잡고 있다. 공원으로는 시내 중심에 호프가르텐 (Hofgarten)공원 등이 있고, 외곽에는 북부 공원, 남부공원, 야생동물원 등과 다양한 정원들이 있으며, 시내 중심에 있는 퀴니히스알레 (Königsallee) 거리는 독일에서 화려한 쇼핑가 중 하나로 운하를 끼고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시내 중심부에 퀴보겐 2 오피스 빌딩(Kö-Bogen II Office Building)의 벽면녹화사업이 추진되어 도심에 새로운 녹색공간이 조성되었다.

뒤셀도르프 면적의 18%가 농경지, 녹지 7% 그리고 숲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숲 면적은 2,900ha로 시유림이 2,500ha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수종은 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와 로브르 참나무(Quercus robur)로 이루어져 있다. 시유림의 목재수확은 생태적 관점과 교통안전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림과는 달리 자연보호와 휴양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유림에서는 연년 수확량이 2,500m³로 연년 생장량 10,000m³의 25% 정도로 임목 축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도심 속의 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은 남부지역, 북부지역, 중심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남부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벤라트 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사진 1 = 서어나무 30,000본 이상이 식재된 유럽 최대의 벽면 녹화 퀴보겐 2 오피스 빌딩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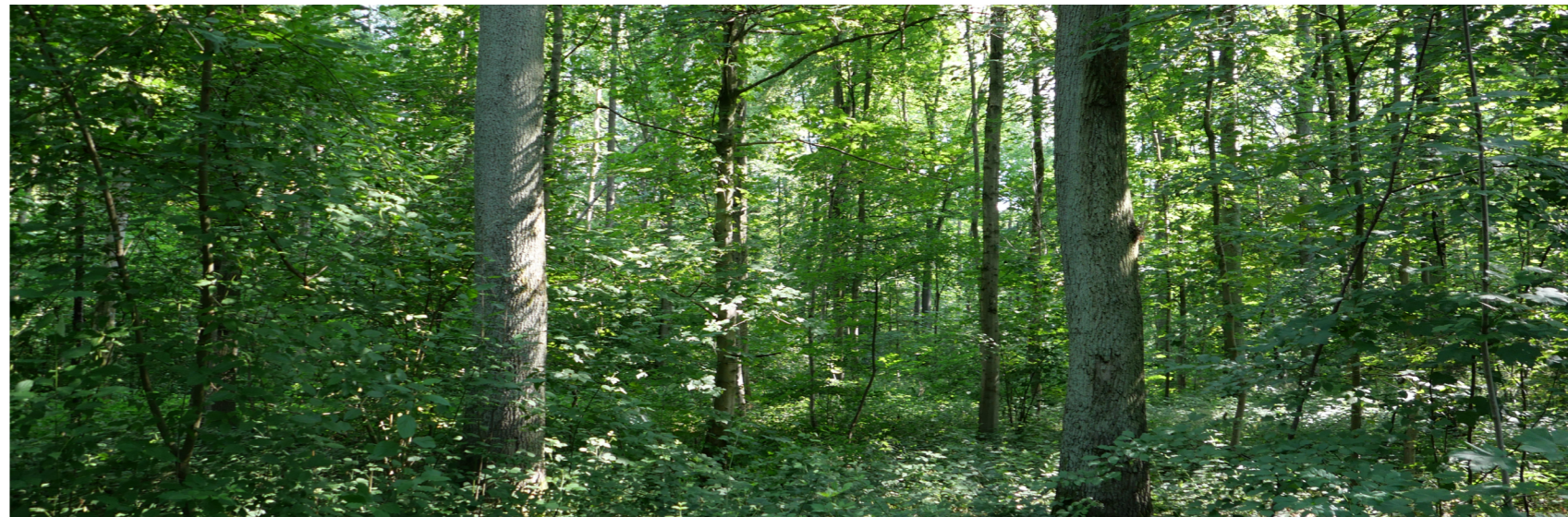


사진 3 = 벤라트 궁 전경

사진 4 = 벤라트 숲 산책로(임도)

사진 6 = 벌채후 집재해 놓은 목재수확목

사진 7 = 로브르 참나무 대경목과 작은 서어나무가 자라는 숲 전경

사진 5 = 벌채후 집재해 놓은 목재수확목판

사진 8 = 회색빛 매끄러운 줄기의 너도밤나무숲 전경

이중 남부지역 숲 면적은 980 ha로 가장 넓으며 벤라트 궁(Benrath Schloss), 자연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라인강변 숲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기능이 강한 숲으로 50km가 넘는 산책로, 15 km 승마로, 14개 숲속 놀이터, 12개 산막이 조성되어 있다. 남부 숲 지역은 라인강 하류 단구에 있는데 마지막 빙하기에 자갈과 모래가 퇴적된 충적토층으로 덮여있다.

남부 숲 지역의 다양한 숲 중에 벤라트 숲은 주변에 벤라트성과 공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숲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숲은 참나무·서어나무 숲으로 활엽수 숲이 주를 이루고 있다.

뒤셀도르프 중앙역에서 남동쪽으로 12km 떨어진 벤라트 전철역을 경유해 벤라트 숲 외곽에 있는 59번 고속도로 위로 난 육교를 지나 벤라트 숲으로 들어서면 넓고 평평한 평지에 숲이 있어 우리나라 숲과 비교가 된다.

길게 뻗은 폭넓은 임도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면 길 좌우로 나무들이 뽕뽕이 자라고 있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산책객들이 숲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사람들만 산책로 외에도 길옆으로 말을 탈 수 있는 승마로가 있는데 이 길은 나무에 승마로 표지판을 부착하여 알려주고 있어 산책객과 승마객들을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길 주변에 벌채한 나무들이 쌓여 있는데 나무에 붉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휴양기능이 강한 도시 숲에서도 안전 및 숲 관리를 위해 벌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굵기가 한 아름이 훨씬 넘고 수고가 30m에 가까운 커다란 로브르 참나무가 듬성듬성 서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너도밤나무와 서어나무가 무리를 이루고 자라고 있는 울창한 숲이 나타난다.



독일에서 참나무 고급 대경재(직경 50cm)를 생산하는 데 150~200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숲의 굵은 로브르 참나무도 수령이 150년 정도되는 노령목임을 추측할 수 있다. 로브르 참나무 주변으로 키 작은 서어나무와 너도 밤나무가 자라고 있어 숲 아래부터 위까지 초록색으로 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숲의 모양은 참나무 줄기에 잠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고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전형적인 참나무 숲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나무 숲을 지나다 보면 너도밤나무 숲이 나타나는데 매끄러운 너도밤나무 줄기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회색빛 기둥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수 수종인 너도 밤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숲 바닥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해 숲 바닥에는 풀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한 낙엽들만 숲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초록색 숲속에서 황량해 보이기도 한다.



사진 9 = 벤라트 성 후원 전경



사진 10 = 라인강 수변림과 휴양객

너도 밤나무 숲 외에도 로브르참나무·너도 밤나무·서어나무 등이 같이 자라는 숲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크기가 비슷한 로브르참나무와 너도 밤나무가 숲의 상층부를 점유하며 같이 자라고 있다.

그 아래에 서어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숲 전체가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간중간에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도 단목으로 자라고 있어 숲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숲 외곽에 있는 벤라트 궁에는 박물관, 공원 그리고 라인강변으로는 수변림이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성은 18세기에 세워졌으며 벤라트 궁 공원은 면적이 61 ha로 문화재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45 ha가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정원, 문화 그리고 자연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조류 80종, 수목 60종 이상이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성 정문을 지나 뒤쪽으로 들어서면 기다란 수로에 그 주변으로 난 초지와 산책로는 보는 사람의 눈을 시원하게 할 정도이고 그 주변으로 커다란 참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산책로 주변으로는 참나무와 너도 밤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250년 전에 도로변에 식재된 피나무는 지금까지 가로수길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나무들이 공원에 자라고 있다.

공원을 지나 라인강변으로 가면 포플러와 버들나무가 줄지어 자라는 수변림이 나타나는데 여름에는 방문객들이 이곳서 수영을 하는 피서지로도 이용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뒤셀도르프는 독일 루르 지방의 금융·상업도시로 발전한 대도시이지만 도심에 있는 다양한 녹지,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대형 건물 전체에 벽면녹화를 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녹색도시다.

외곽지역에는 경제보다는 휴양,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숲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정책으로 남부지역의 숲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벤라트 궁과 공원 같은 시설들을 시민들의 휴양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숲의 관리 모델을 보여 주는 것 같다.